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의 애인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면 주님의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 주인으로서 영육의 것들을 쓰게 된다.
2. 어떤 사람이 큰 건물과 농장지를 가지고 있다 하자.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해 준다고 그 빌딩과 농장을 주지 않는다. 한 여자가 몸도 맘도 다 주고 그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결혼하고 한 몸 되어야 주인 되어 같이 쓰게 한다.
이와 같이 주님도 그러하시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며 그 일을 해도 하늘나라와 주님이 것들을 주지 않으신다. 오직 주님의 것이 되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와 주님의 것들을 주인같이 쓰게 하시고 주님을 신랑으로 보고 사랑하게 하신다.
3. 자기 몸도, 마음도, 영도, 사랑도 온전히 주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 편이 되어 쓰임 받는 하나의 일꾼이 되지 않는다. 몸과 몸이요, 마음과 마음이요, 영과 영이요, 사랑과 사랑이다.
4. 우리가 주님 것이 되어야 주님 것이 우리 것이 된다.